

디지털시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유기적 패션디자인 연구

김 유 경* · 유 영 선*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박사* ·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A Study of Organic Fashion Design Scording to Change in the Paradigm of the Digital Age

Yoo-Kyoung Kim* · Young-Sun Yoo*

Ph. D.,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yung Hee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yung Hee University*

(2011. 4. 26. 접수; 2011. 6. 17. 수정; 2011. 6. 22.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ploring the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of organic fashion design different from the past by analyzing the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of organic fashion design dependent on the digital paradigm and simultaneously suggesting the theoretical data required to understand the changing trend of organic design in relation to the paradigm of the ag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s as follows;

The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of organic fashion design according to the digital age appeared to have same aspects. Pluralism respecting multi-culture, hybrid of multi-meaning image, circulation that can consistently circulated, non-hierarchical post-structure, de-boundary through dissolution of genres, digital nomad considering mobility, human centered through significant sensitivity, de-materialization of assimilation between reality and non-reality, conceptualization given the concept of designer, technology combining with digital technology.

This study found that organic fashion design in the digital age has the same conceptual context as periodical paradigm freely circulating consistently by organically combining each individual. This can be understood as the trend of design implied in conceptual context that organic fashion design requires periodical paradigm.

Key Words: Digital age(디지털시대), Digital paradigm(디지털 패러다임), Organic fashion design
(유기적 패션디자인)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디지털의 급속한 발전과 보급은 현재를 디지털시대로 명명하는 주요 계기를 제공하며 많은

분야에서 차별화된 개념과 상상력을 통해 과거 아날로그시대와 차별화된 변화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양상은 디자인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시대 디지털의 발전과 보급은 인간생활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고도의 테크놀로지가

결합되어 차가운 감성을 유도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러한 양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특성은 많은 디자이너에게 차가운 감성에 대응할 수 있는 견해에서 자연 및 유기체를 주제로 한 작품 활동을 유도하게 되었다.

특정시대 패러다임은 디자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디자인이 한 시대를 대변하고 표현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여왔으며(김인경, 2003) 디자인 사조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는데 유기적 디자인 또한 그 흐름과 병행하여 왔다. 디지털시대 인간의 건강한 삶의 주요소인 자연에 대한 관심은 유기적 디자인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전개된 전통적인 유기적 디자인이 지속되는 가운데 디지털시대 패러다임과 관련한 차별화된 유기적 디자인을 출현, 발전시키는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르누보를 근원으로 유기적 디자인(organic design)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유기적 모더니즘(organic modernism) 등 다양한 용어로 발전해온 유기적 디자인은 지금까지 출현한 용어의 사례들을 비추어 볼 때 향후에는 새로운 용어로 표현될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때문에 시대적 패러다임과 관련한 유기적 디자인의 특성 및 패러다임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작업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유기적 디자인은 디지털시대 패션디자인 분야에서도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패션과 관련해서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기적 패션디자인의 표현 특성을 분석하는 과정에 건축과 제품디자인에서 이론화된 유기적 디자인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패션디자인의 분야 특성을 고려하여 유기적 패션디자인을 이해하고자한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디지털시대의 패러다임, 유기적 디자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패러다임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정민 외(2008)는 다원주의와 탈중심주의, 신인류적 사고와 감성의 혁명, 비물질적 가치관, 순환적·유기체적 세계관으로 분류하였다. 김종균(2000)은 디지털화와 감성화의 경향, 김지희(2005), 김지희, 유태순(2006)은 탈중심화와 유목민문화,

퓨전화, 감성화로 분류하였고 권은숙(2003), 윤민희(2003) 등의 연구들 또한 개념 확장, 다문화주의, 비가시성, 구조적 다원화, 영역의 광범위, 감성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유기적 디자인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강병길(2008)은 형태적 측면의 유기적 제품 디자인을 연구하였고 박승조(2008)는 생물학적 유추에 따른 유기주의 모더니즘 디자인 연구하였으며 이운(2009)은 시대적 관점에서 전개된 유기적 디자인의 형태미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시대적, 문화적 관점에서 디지털시대 패러다임의 양상을 이론화하고 이를 근거로 유기적 패션디자인의 표현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전통적인 유기적 패션디자인과 차별화된 디지털시대 유기적 패션디자인의 표현 특성을 이해하는 동시에 시대패러다임과 유기적 패션디자인의 관계를 밝히고자한다. 본 연구를 통해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유기적 디자인의 변화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자료를 제시하는데 이를 연구의 목적이라 할 것이다.

디지털시대와 관련하여 유기적 패션디자인의 전개양상을 이론화하고 그 의미를 밝힘으로써 시대와 관련한 유기적 패션디자인에 미적 가치를 밝혀 내재된 존재 의미를 이해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본 연구의 의의이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디지털시대의 대표적 상징인 컴퓨터의 상용화와 함께 디지털이 일반화된 1990년(권상희, 2008) 이후의 디지털, 패러다임 및 유기적 디자인에 관련한 선행연구논문과 전문서적 등의 문헌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문화적 관점을 중심으로 도출된 디지털 패러다임의 특성을 이론적으로 정리하였고 건축 및 제품 디자인에서 이론화된 선행연구를 근거로 유기적 패션디자인의 개념을 이론화하였다. 유기적 패션디자인의 사례고찰을 위한 사진은 디지털 미디어의 혁신기와 함께 디지털이 일반화된 1990년 이후부터 2010년까지 컬렉션, 패션쇼, 전시회 등에서 발표된 작품들 중 패션디자이너의 개인 홈페이지, 인터넷 사이트 및 관련 문헌에서 발췌하여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수집, 분류, 선정과

정은 1차적으로 자연주의, 유기체론과 생태학적 측면에 근거한 유기적 패션디자인을 선정하였고 2차적으로 패션디자인 관련 전문가 6인에 의해 의견이 일치된 유형분류와 관련한 스타일을 최종 정리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유기적 디자인

유기적 디자인(organic design)은 자연주의에서 출발하여 자연과의 관계, 유기주의 개념, 생태학 등의 기본원리를 응용하는 것이다. 즉 자연의 유추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을 디자인에 접목하는 것이다(강병길, 2008). 유기적 형태는 비례, 리듬, 다양성 등이 내재된 자연환경에 기능적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외형과 그 내적 의미를 분리시킬 수 없는 복합적인 구조를 갖는다(신병윤, 2002). 디자인 전개과정에서 하나의 자연구성요소로 디자인 결과물을 인식하여 형태 뿐만 아니라 생태적 특성을 직·간접적으로 도입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형상화할 수 있다. 이때 자연개념은 외부 형태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개념적 측면에서 유기체론과 생태학적 관점에서 디자인 내면에 유기주의를 전개할 수 있다.

개념적인 유기적 디자인의 전개는 유기적인 자연관의 총체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각 부분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유기체는 각각의 부분들이 통일된 시스템을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유기적 건축디자인에서 건축물은 바위계곡 즉 자연의 일부로 인식됨으로써 건축과 자연이 유기적으로 결합된다(그림 1).

유기성과 모더니즘이 결합한 유기적 모더니즘(organic modernism)은 여러 방향의 곡선이나 곡면과 비대칭적인 추상적 형태를 의미하며 1940~50년대에 초반 직물류와 가구디자인에서 주로 나타난 디자인 사조이다(James, 2006). 유토 피아 모더니즘의 딱딱하고 기하학적인 기계형태미학의 변화로 나타난 유기적 모더니즘은 부드러운 곡면, 볼륨감 있는 형태, 기능성 등을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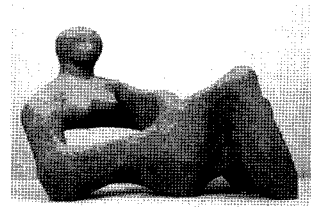
반으로 구조가 조직적으로 결합되었다. 유기적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표현 특성은 단순한 추상과 기하학적 형태인 초현실주의 작품(그림 2)이 유연한 이미지로 디자인(그림 3)에 직접적으로 자유롭게 표현된 것이다(최병훈, 2004).

유기적 디자인의 사상에 근원은 아르누보에서 찾을 수 있으며 현재는 에콜로지까지 영향을 미치며 전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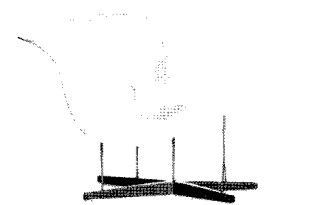
디지털시대 유기적 디자인은 보다 창의적인 개념이 새로운 소재,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결합되어 형태적 측면과 함께 디자인 방법론까지 변화, 발전하고 있다.



<그림 1> Frank Lloyd Light. 1936.
낙수장.
(출처: <http://www.wikipedia.org>)



<그림 2> Henry Moore. 1938.
누워있는 여자
(출처: 디자인. (p.107). 토마스 하우페. 2005. 서울: 예경)



<그림 3> Charles&Ray Eames. 1948.
라 웨즈.
(출처: <http://www.aram.or.uk>)

2. 디지털시대

1998년 미국에서는 디지털시대의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법안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s)을 승인하여 현재를 디지털시대로 정의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권상희, 2008). 디지털시대는 아톰(Atom)이 지배하는 아날로그 세상과 차별화된 비트(Bit)가 주도하는 시대개념이다(이성우, 2007).

디지털시대의 발생배경은 디지털 문화의 시작을 관점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튜링의 기계, 전보와 사진 기술의 발달, 자본주의와 정보 테크놀로지 등의 사건을 배경으로 도래하였다(Charlie Gere, 2006).

튜링기계(turing machine)는 인간의 사고를 기계화하고자 사람의 두뇌처럼 정보를 계산하는 기계의 개념을 정립한 알고리즘으로 오늘날 컴퓨터 프로그램의 원형이다(이인식, 2000). 컴퓨터, 기계, 시대적 발생배경의 원인으로 시작된 디지털시대는 1950년대 컴퓨터 상용화와 함께 디지털 기술이 텍스트 등 데이터 부분에 도입되었다. 1980년대 CD가 등장하며 대중예술에 디지털화가 상용화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1990년대 MPEG (Moving Picture Experts Group)등 동영상, 방송에 디지털화되어 디지털 압축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미디어의 혁신기로 도래함과 동시에 일상생활 전반에 디지털의 일반화가 이루어졌다(권상희, 2008).

아날로그 시대의 특성과 다양한 양상들이 혼재하고 그 양상의 변화속도가 가속화되어짐에 따라서 모호한 경계영역 및 다의적이며 복잡한 특성을 보여주는 디지털시대는 모든 잠재적인 생성 요소들이 자의적 혹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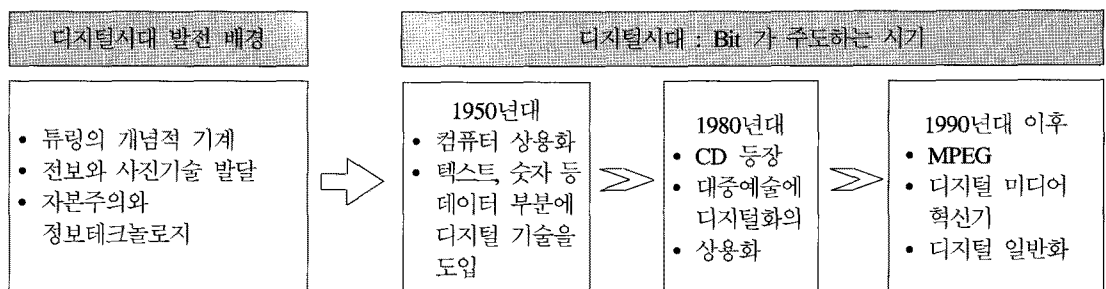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변화, 발전되고 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급진적 발전에 의해서 일시적, 비물질적, 무제한적으로 생성되어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디지털 시대의 시기를 규정하는 것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1950년대 이후 개별적으로 적용, 연구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4>와 같다.

3. 디지털시대 패러다임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시대적 관점을 중심으로 시대 패러다임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정리하여 다원성, 혼성화, 순환성, 탈구조화, 탈경계, 디지털 노마드, 비물질화, 인간중심화, 개념화, 테크놀로지화로 이론을 정리하였다. 디지털시대 자연주의로의 회귀와 자연중심사고의 부각에 따라 순환적·유기체적 세계관이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유기적 디자인이 유기주의, 자연주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전개된 특성을 고려해 본 결과 상위에서 도출된 키워드는 유기적 디자인 측면에 적용할 수 있다.

1) 다원성

디지털시대 이분법적 사고의 붕괴에 따른 다원주의는 단성적인 빠른 변화를 추구했던 서구 문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주변문화 즉 소수문화에 대한 재조명으로 다문화주의의 관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디지털 문화가 추구하는 속도에 대한 집착의 반향으로 정신적 차원을 강조하는 동양적 삶의 양식을 요구하는 것으로 디지털시대 기술문명의 새로운 돌파구로 동양문화가 의미를 갖는 것이다(김지희,



<그림 4> 디지털시대의 발전 배경과 변천사

유태순, 2006). 디지털시대 다원성은 세계의 다양한 문화의 유기적인 교류와 공존을 지향하게 되어 비주류의 경계를 허물게 되는 공동체적 시각에서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시야를 넓혀가게 될 것이다.

2) 혼성화

섞임과 공존의 미학인 혼성개념의 대두로 부각된 디지털시대 혼성(hybrid)화는 이분법적 극단을 공존과 내파시킴으로서 새로운 미적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김현수, 양숙희, 2003). 또한 시대적 특성과 함께 무한한 누층구조로 나타난 결과 하나의 세계가 복수적으로 설명가능하다(이정우, 1999).

디지털시대 혼성은 디자인을 비롯한 문화영역에서 보편성을 추구한 순수주의 추구 경향의 경계를 허물고 이질적인 다양한 이미지가 어우러져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다의적인 이미지를 제공해주고 있다.

3) 순환성

디지털시대 순환양상은 모든 구성요소들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기체적 세계관과 관련한 생태학적 사유로 설명할 수 있다(이정민 외, 2008). 디자인의 근간이 되는 인간이 사유하는 정신, 사회, 자연의 근원적인 생태적 주체의 내재성에는 어떤 서열구조와 관계없이 그 존재의 차이를 인정하며 순환하는데(장시기, 2008) 디지털시대 사유는 일정 서열에서 탈피, 지속적으로 순환하고 있다.

디지털시대 정해진 방향 없이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순환성 사고는 디자인에 직접적인 사유의 틀을 제공하여 디자인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순환의 체계는 일련의 변화요소나 과정이 되풀이되거나 지속적으로 도는 과정 속에서 구성요소들이 지속가능하게 순환하는 개념의 표현이다.

4) 탈구조화

탈구조란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탈피, 구조

중심에서 벗어나 전체 구조보다 전체를 구성하는 개체 각각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배체제나 지배구조의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불확실성을 그대로 포용하는 열린 사고를 지향한다.

탈구조는 시·공간의 개념을 붕괴하고 수평, 수직의 대립을 파괴하는데 이때 구조주의의 구조를 단순히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주의 내부에서 해체나 탈 구조를 하는 것이다. 디지털시대 디자인과 관련하여 김지희(2005), 윤민희(2003) 등은 탈구조화를 탈중력, 탈중심, 비위계 등의 특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5) 탈경계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함께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세계의 경계가 무너진 지구촌화의 특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적 특성은 탈경계 사고를 유도하였다. 탈경계 사고는 디자인과 결합하여 시각과 견해의 변화, 전환, 다양성 등을 인정하며 새로운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탈경계 양상은 디자인 창조과정에서 기존의 상상력이나 관념이 충돌하여 다른 관점을 수용하고 통합하는 방식으로 표현, 과거의 규정된 방법과 경계를 허물게 되었다.

디지털시대 ‘경계의 해체’는 예술 영역 간에 경계를 확실하게 규정하는 것에 의미가 사라지게 되어 다양한 예술 영역이 혼재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6)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시대의 상징어로 탈바꿈한 노마드란 단어는 디지털 기기로 무장한 현대인의 종잡을 수 없는 성향과 관련하여 디지털 유목민 즉,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란 신조어가 되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동반한 디지털 유목적 사유의 대표적 패러다임의 결과로 디지털시대 인간의 상상력을 가상현실에서 구현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다양한 변화의 잠재성을 동반하며 복합적이고 불확정적인 경계를 지향하는 순환적 체계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다.

7) 비물질화

물질을 기본으로 예술을 지향했던 개념은 포스트모더니즘 경향으로 그 경계가 무너지게 되었고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비물질화 양상의 발전을 가속화시켰다. 뉴미디어의 발전은 예술에 물질과 비물질의 개념에 경계를 붕괴시키고 진화하고 있고 이것은 인간의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결과 디자인의 표현 매체와 형식에 비물질화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디자인에서 비물질이란 작가의 상상력 즉 관념에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물질적 기초에 근거하는 디자인이 아니라 관념과 개념에 의해 점점 비물질화 되어가는 결과물을 의미한다.

8) 인간중심화

디지털시대 ‘이성과 지식’중심에서 ‘감성’중심의 인식변화는 인간생활 전반에 정신적인 면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유도하게 되었고 과거와 차별화된 감성화를 추구하는 인간중심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시대 합리성이 감성으로 전환되면서 출현한 감성화 추구 양상은 과거 인간중심이 사용자 중심의 기능성, 경제성 중심개념에서 벗어나 인간의 정서적, 심리적 만족 등과 같은 감성적 척도 중심의 디자인 양상으로 범위가 확장되

었다(김종균, 2000; 이정민 외, 2006).

드림 소사이어티(Dream society)로 변화를 의미하는 디지털시대의 유희의 감성에서 유희는 생활기능, 사회기능, 문화의 기능을 갖는 필수적인 요소이다(김지희, 유태순, 2006). 디자인에서 유희적 감성을 제공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삶에 정신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본질적인 행복을 추구하여 생활을 개선해준다는 의미가 있다.

9) 개념화

디지털시대 창조력, 주관적 상상력을 중시하는 양상은 개념(concept) 중심 양상을 유도하여 패러다임에서 물질적인 개념이 붕괴되고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디자인의 표현매체와 형식에 있어서 디자이너의 상상력, 개념의 가치가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게 되었다. 그 결과 디자인 제작 방법과 결과에 아닐로그시대와 차별화된 물질적 작품과 차별화된 개념예술 형태의 디자인 결과물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개념화 양상으로 나타난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상상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결과물로 나타나는 최종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디자인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다.

10) 테크놀로지화

테크놀로지와 예술이 결합해서 과학기술의

<표 1> 디지털시대 패러다임에 따른 디자인 패러다임의 특성

패러다임 요인	디지털시대 패러다임에 따른 디자인 특성
다원성	정신적 사고를 강조하는 동양문화의 지역성을 존중
혼성화	다의적인 이미지를 내포한 다양한 이질적인 이미지의 혼성 디자인
순환성	일정한 체제와 방향성에서 탈피한 순환하는 통합된 디자인 전개
탈구조화	개체의 존엄성과 자유를 인정하는 불확실성의 구조화. 비위계적 탈구조
탈경계	다양성을 인정한 경계의 해체
디지털 노마드	디자인에 디지털 유희민의 문화를 이해한 사고체계를 반영
비물질화	뉴미디어 발전에 따른 물질의 개념 붕괴에 따른 비물질화 양상
인간중심	유희적 인간 사고의 부각에 따른 디자인에 유희적 이미지의 감성화 추구
개념화	디자인 제작방법, 결과에 개념예술 형태의 결과물 전개
테크놀로지화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과학 및 기술의 발전을 결합한 디자인

발전과 함께 진화하고 있는 양상은 인간의 삶과 관련한 광범위한 분야에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기술사용이 구별되는데 미묘한 특성이 있어서 모든 작품의 표면에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결합이 언급되는 것은 아니다. 디자인 작업과정에서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기술 또한 디지털 테크놀로지 결합이다. 차가운 감성을 표현하는 디지털 테크놀로지화는 디지털시대 패러다임에서 차가운 현실에 대안으로 유기적 디자인이 부각되는 주요한 패러다임 양상으로 의미가 있다.

디지털시대 패러다임에 따른 디자인 특성은 <표 1>로 설명할 수 있다.

III. 디지털시대 유기적 패션디자인의 표현 특성

1. 유기적 패션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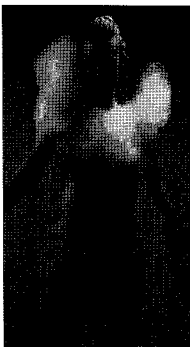
유기적 패션디자인은 유기체론, 자연주의, 생태학적 개념을 적용하여 패션에 유기와 자연의 생명성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표현한 패션디자인을 의미한다. 유기적 패션디자인은 유기체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질서 즉 유기체가 스스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능적인 구조의 개념을 지향하게 된다.

유기적 패션디자인은 형태적, 개념적 방법론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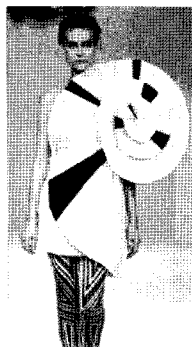
형태적 측면의 유기적 패션디자인은 유기, 자연의 형태와 이미지, 자연구조 등을 모방하는 것에서 출발, 유기체론과 생태학적 관점의 자연관을 총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연의 형상을 사실적, 은유적, 초현실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전개할 수 있다(그림 5, 6). 생태학적인 관점이 내재된 자연형태의 표현은 스스로 발전하는 생명의 경제적인 원리가 표현되어 딱딱한 구조주의의 이미지와는 차별화된 양상을 보여주게 된다.

개념적 측면의 유기적 패션디자인은 자연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와 같은 디자이너의 관점이 유기체론과 생태학적 관점으로 전환되면서 유기적인 자연관을 자연스럽게 패션에 유입하여 유기주의, 자연주의 사고를 패션에 적용, 표현한 것이다. 패션 외형에 직접적으로 유기, 자연의 형태나 이미지가 표출되지 않을 수 있는 개념적 측면의 유기적 패션디자인은 그 출현이 건축분야에서 유래되었다. 때문에 자연 본성을 해치지 않고 디자인을 전개하는 결과 디자인 결과물이 자연의 일부로 인식되는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그림 7).

유기적 모더니즘 패션디자인은 유기적 패션디자인에 모더니즘이 결합된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 유기적 패션디자인은 산업사회 기술을 결합한 제작 과정에서 구조주의 모더니즘과 차별화된 유기적인 곡선을 지향하는 유기적 모더니즘 패션디자인 양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곡선과 곡면의 패턴과 제작 과정에 경제성을 추구하는 유기적 모더니즘은 부드러운 3차원 곡면의



<그림 5> LucyandBart.
2007 Grow on you.
(출처: <http://www.lucyandbart.com>)



<그림 6> Victor and Rolf.
2009 S/S collection.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7> Alexander McQueen.
2010 Spring collection.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8> Geatano Navarra.
08/09. Milano collection
(출처: <http://www.pingmag.jp.com>)

패션외형을 보여주게 되었다. 유기적 모더니즘 패션디자인의 외형은 자연, 유기이미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초현실적인 형태미를 보여주게 되었다. 초현실적 형태미는 유기적 모더니즘이 유기적 디자인과 가장 차별화된 표현 요소이다(그림 8).

역사적으로 유기적 패션디자인의 근원은 아르누보에서 그 개념이 출현하여 모더니즘의 발전과 함께 유기적 디자인과 유기적 모더니즘 등 본격적인 디자인 사조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모더니즘의 영향아래 활발하게 발전한 유기적 패션디자인은 아르누보의 장식적 이미지와 차별화된 형태미의 표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아르누보 패션디자인과 차별화된 유기적 패션디자인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 기준으로 설명 가능하다.

2. 디지털시대 패러다임에 따른 유기적 패션 디자인의 표현 특성

1) 다원성

디지털시대와 관련한 다원성은 다양한 문화의 혼재를 인정한 결과 중심문화를 부정하고 주변, 소수문화의 다양한 혼재양상을 보여주었는데 유기적 패션디자인과 관련한 다원성은 자연주의가 동양철학에서 출현한 특성을 고려 동양 문화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유기적 패션디자인에서 인체는 그 자체가 완전한 유기체로 유기적 건축디자인이 자연물로 인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체가 유기체로 인식가능하다. 유전자 구조의 구형을 인체위에 연속적으로 배치하는 과정에 기존에 착장스타일에서 벗어나 패션과 인체를 융합하는 유기체적 사고를 표현함으로써 형태적·개념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유기적 패션디자인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9).

자연주의에 근거한 유기적 패션디자인이 디지털시대 자연중심 사고와 맥락을 같이 하는 디자인사조의 의미를 알 수 있다.

2) 혼성화

혼성화 경향은 패션이 시대를 반영한 문화를 표현하고 착용자의 관념과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주요 요소이다. 따라서 패션디자인 안에 문화, 성, 이미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혼성하여 표현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디지털시대 자연주의 중심사고는 시·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어 자연과 초자연의 이미지가 동시에 혼재되어 패션 스타일 안에 내재적으로 상반된 성향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스스로 생성을 지속해 가는 자연의 생명성은 각진 남성적 이미지를 부정하고 부드러운 곡선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0). 이 질적인 이미지가 혼재된 유기적 패션디자인의 혼성화는 총체적으로 조화를 꾀하는 유기체적 사고를 반영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3) 순환성

패션이 인체와 인체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디자이너의 관념을 표현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유기적 패션디자인에서의 순환성은 패션 스타일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 관계를 고려하고 패션과 인체의 관계를 고려한 측면에서 각 구조와 존재의 차이를 인정한 유기체적 사고를 표현한 디자인 양상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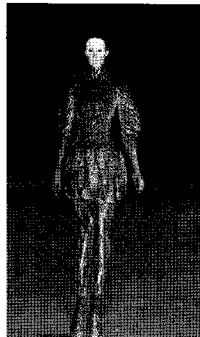
패션의 외형은 상하·좌우, 앞·뒤 구분 없이 하나의 단위형태가 지속적으로 인체 위에 순환하여 개념적 측면의 유기적 패션디자인으로 전개되었다. 정형화된 형태미, 착장 스타일을 부정하나 인체를 고려한 유기적 이미지의 구성요소는 인체위에 지속적으로 순환되는 과정 속에 착용자의 착용의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가변 가능한 형태미를 보여주었다(그림 11). 유기적 패션디자인의 순환성은 구성요소를 보다 더 부각시켜주는 동시에 전통적인 패션의 기능적인 패턴의 개념을 보다 더 확장시켜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 의미가 있다.

4) 탈구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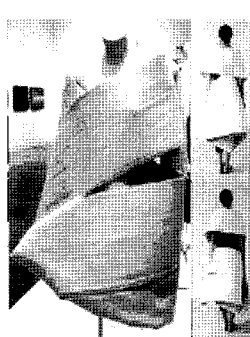
패션의 탈구조화는 구조주의를 부정한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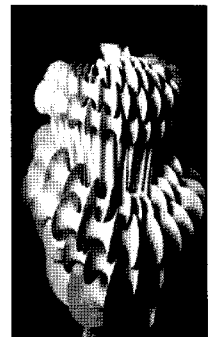
<그림 9> Rowan Marsh.
2005 Genetic Sculpture.
(출처: <http://www.rowanmarsh.com>)



<그림 10> Alexander McQueen.
2010 Spring collection.
(출처: <http://www.style.com>)



<그림 11> Mee Jin Yoon.
2010 Spring Skin&Bones.
(출처: <http://www.pingmag.jp.com>)



<그림 12> Rowan Marsh.
2005 Fabric Sculpture.
(출처: <http://www.rowanmarsh.com>)

의 결과물로 디지털시대 탈구조화 양상은 이분법적인 구조주의 개념을 부정하되 전체 구조를 구성하는 객체를 존중하는 해체의 양상을 적용하여 패션을 전개한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기적 패션디자인에서 탈구조화는 유기와 자연의 형태나 이미지 등을 인체를 고려하여 비위계적인 조형성을 보여주는 해체에서 출발한 고정적인 패션외형을 부정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유기형상을 오브제로 직접적, 은유적, 초현실적인 방법으로 자유롭게 패션디자인을 전개한 결과 인체와 유기적 패션디자인은 고정적인 패션디자인의 형태미를 부정하고 새로운 조형성으로 전개되었다(그림 12). 유기적 패션디자인의 탈구조화는 유기, 자연의 객체를 존중하는 사고와 작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합된 자연존중화 사고를 작품에 내재시키는 과정에서 규범화된 패션외형을 부정하여 창의적인 외형을 유도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5) 탈경계

인체위에 착용을 목적으로 출발한 패션의 영역적 특성은 디지털시대 탈경계 양상과 함께 전통적으로 규범화되었던 패션디자인의 표현 경계가 무너지는 결과 타 장르로 전환되거나 타 장르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디지털의 결합은 다양한 영역 간 협업을 통해 패션디자인의 전통 영역의 붕괴를 가져오게 되어 전통적인 패션 영역의 정체성은 의

미를 잃어가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유기적 패션디자인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전자구조 오브제를 유기체론에 근거하여 유기적인 생성이미지를 표현한 유기적 패션디자인은 패션영역에서 벗어나 건축적 공간을 형성한 탈경계의 표현특성을 보여주었다(그림 13). 유기적 패션디자인에서의 탈경계 양상은 디자인 전개과정에서 착용자와 관람자에게 패션영역을 넘어 새로운 영역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6) 디지털 노마드

패션은 착용자의 이동에 의해 자유롭게 다양한 환경과 교류할 수 있는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디지털 노마드 양상은 현재 노마드의 생활을 이해하여 디자인을 전개한 양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동성을 고려한 형태의 가변, 기능성을 고려한 제품과 패션의 결합 등은 디지털 노마드의 자유로운 여정을 근본적으로 이해하여 패션 착용자를 존중하는 디자이너의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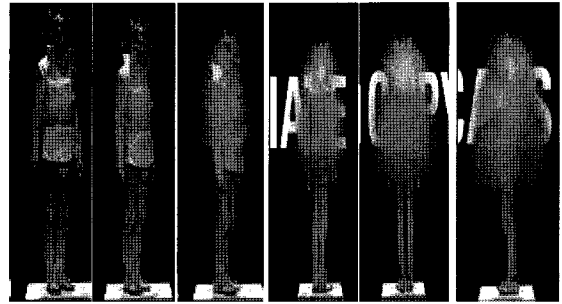
그룹 가이아(GAIA group)는 에벌레가 부화하는 이미지를 주름구조의 오리가미 기법을 통해 패션디자인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새로운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개념을 도입하여 창의적 기능성을 제공한 유기적 패션을 제안하였다. 접으면 이동이 간편한 형태로, 펼치면 유



<그림 13> Rowan Mersh. 2005
Pics of Rowan Mersh's work.
(출처: <http://www.rowanmersh.com>)



<그림 14> GAIA group.
2009 Veasyble.
(출처: <http://www.yatzer.com>)



<그림 15> Bart Hess. 2009 Skin king (I hate copy cats).
(출처: <http://www.lucyandbart.com>)

기적 형태로 전환되며 노마드를 위한 건축적 공간을 제안하여 본래 옷의 역할과 새로운 공간제안의 다기능성이 복합된 패션이다(그림 14).

이는 인간의 생활을 이해하는 사고에서 출발하여 기능적, 정신적 측면에서 인간을 존중하여 디자인을 전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7) 비물질화

유기적 패션디자인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은 디자인의 형식과 표현매체에 작가의 관념과 개념을 중심으로 고정된 물질의 패션외형에서 벗어난 비물질적 이미지의 결과물로 적용할 수 있다.

미디어의 결합은 유기적 패션디자인에서 작가의 전개 의도에 따라 유기주의를 내재한 가상의 이미지를 제공하거나 보다 더 사실적인 이미지로 다양하게 전개할 수 있다. 미디어 공간에서 유기적 형태, 이미지는 즉흥적·일시적,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이미지로 표현 가능하다. 그 결과 유기적 패션디자인은 유동하는 이미지로 전개된 가시적 특성을 보여주게 되고 고정되고 정형화된 패션이미지에서 완전하게 탈피할 수 있다.

패션외형에 애니메이션 작업으로 유기이미지를 표현한 유기적 패션디자인은 실제와 비실제적인 유기형태의 이미지가 공존했다. 바트 헤스(Bart Hess)는 사실적인 패션 표면에 가상의 유기이미지가 결합, 생성된 비물질을 표현하였다. 그 과정에서 유기적 패션디자인은 하나의 생명체로 전환되는 결과물을 보여주었다(그림 15).

패션이 디지털과 결합된 과정에서 실제와 비실재,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를 허물어 새로운 패션의 장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

8) 인간중심화

인간의 기능성을 고려하고 인간의 감성을 표현하는 패션특성을 고려할 때 인간의 정신적인 삶에 행복을 제공하는 디지털시대 인간중심화양상은 패션디자인에서 정신적, 감성적 측면을 중요하게 다루어 인간에게 즐거움, 안정 등 긍정적인 감성을 제공하는 디자인을 전개하는 양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유기적 패션디자인에도 감성적 측면을 중요하게 다루어 유희적 감성을 제공하는 디자인을 전개한 특성이 나타났다. 즉흥적이고 창조적인 디자이너의 자유로운 유희적 사고는 디자인 결과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전통적인 패션디자인과 차별화된 재미있는 감성적 경험을 제공한다. <그림 16>은 착용자의 불편한 상황과 달리 보는 관람자로 하여금 유희적인 감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기능성을 고려했던 과거의 인간중심화와 달리 즉흥성, 자유성 등의 자유로운 사고로 전개된 디자인 결과 인간에게 유희적 감성의 자극을 통해 인간중심화를 추구하고 있다.

인간에게 유희적 감성을 제공한 인간중심화는 기능성 측면의 인간중심화에서 정신적 측면의 인간중심화로 범위를 확대시켰다. 동시에 정신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고 본질을 개선하는 디자인을 전개하는 디자인 전개에 방향성을 제시한 의미를 가진다.

9) 개념화

디자인 창작의 전 과정을 디자인 결과물로 인식하고 개념을 중심으로 물질을 붕괴하고 디자이너의 정신적 개념을 중시하는 개념화는 패션 디자인에서 디자이너의 자유로운 개념을 존중하여 패션전개 전 과정에서 창의적, 차별화된 표현방법과 방향을 제시한 양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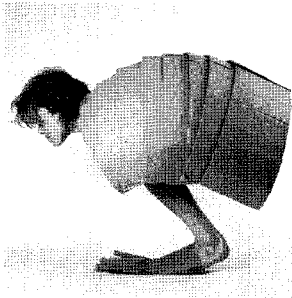
유기적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개념화 특성은 유기 혹은 자연의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벗어나 디자이너의 창의적인 사고가 자유로운 전개 방향으로 제시된 특성으로 분석되었다. 분명한 이미지를 거부하며 혁신적인 미래적 패션을 지향하는 디자이너 아라 조(Ara Jo)는 자신을 인어로 표현하는 과정을 패션디자인에 전개하였는데 자신만의 스토리를 유기적 패

션디자인에 결합하여 내적의미를 부각시켜 전개하였다(그림 17). 패션에 자유로운 개념을 부여한 패션디자인은 메시지를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자로서 의미를 갖는 동시에 패션의 외형에서 벗어나 그 내면에 내적 의미를 부각시켜준 의미가 있다.

10) 테크놀로지화

디지털시대의 시대적 특성을 가장 대표하는 테크놀로지화 양상은 패션에 전개과정과 결과에 디지털을 결합하여 전개한 양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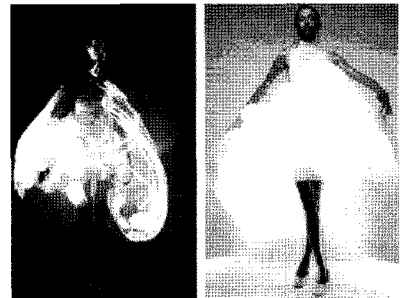
유기적 패션디자인에서 테크놀로지화는 유기주의를 반영한 패션에 기술이 결합되어 패션에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혼성성과 다기능성의 조형성이 나타난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림 16> LucyandBart. 2008
(출처: <http://www.lucyandbart.com>)



<그림 17> Ara Jo. 2010 S/S collection.
(출처: <http://www.showtime.arts.ac.uk/ARAJO>)



<그림 18> Philips Design. 2006. Skin Prove.
(출처: SimplyMaterial, material materiales. (p.116) victonar. 2007)

<표 2> 디지털시대 패러다임에 따른 유기적 패션디자인의 표현 특성 분석

디지털 패러다임에 따른 유기적 패션디자인	세부적 특성	디지털 패러다임에 따른 유기적 패션디자인	세부적 특성
다원성	자연주의 철학에 근거한 동양문화 지향.	디지털 노마드	유기형태의 이동성. 건축적 공간 제한.
혼성화	자연·초자연, 현실·비현실 등 이질적 이미지의 혼성.	비물질화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가상이미지의 사실적 표현.
순환성	표현형태의 순환성.	인간중심화	유희적 감성제한의 정신적 인간중심화.
탈구조화	비위계적 열린 구조.	개념화	자유로운 개념중심표현
탈경계	패션영역의 경계해체.	테크놀로지화	인간감각과 디지털의 혼성적 결합

필립스(Philips Design)는 벌집형태 유기적 패션디자인에 LED조명을 결합하여 착용자의 감정, 생체리듬 등 감각 작용을 인지하여 작동되는 테크놀로지화를 통해 인간과 패션의 상호작용특성을 보요주고 있다(그림 18).

이는 패션과 사람, 환경이 기술과 결합하여 아날로그 시대에 불가능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준 디자인의 시대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디지털시대 패러다임에 따른 유기적 패션 디자인의 표현특성을 분석,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IV. 결론

디지털과 아날로그적 양상이 혼재,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유동적으로 변화한 결과는 단편적으로 규정된 영역의 한계를 벗어나 표현방법과 영역에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디지털시대의 유기적 패션디자인의 표현양상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밝혀 시대 패러다임과의 관계를 규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시대의 패러다임은 다원성, 혼성화, 인간중심화, 순환성, 디지털 노마드, 개념화, 탈구조화, 탈경계, 비물질화, 테크놀로지화 등으로 이론화할 수 있다. 시대적 패러다임은 디자인 패러다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시대적 특성을 반영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디지털시대 패러다임과 관련한 유기적 패션디자인의 세부 표현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시대패러다임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표현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양문화를 지향하는 다원성, 자연·초자연의 이질적 이미지의 혼성화, 유기체적 사고를 내재한 표현 요소의 순환성, 개체를 존중하여 구조주의에서 탈피한 형태 조형성을 표현한 탈구조, 패션 분야의 영역을 확장한 탈경계, 디지털시대 노마드의 생활을 고려한 디지털 노마드, 인간의 정신적 삶에 가치를 부여한 인간중심화, 미디어와 결합하여 실재·비실재 이미지가 융합된 비물질화, 디자이너의 자유로운 개념을 표현한 개념화, 인간 감각과 디지털이 결합된 테크놀로지화 특성 등이 분석되었다.

셋째, 디지털시대 패러다임과 관련하여 유기적 패션디자인의 전개 양상을 살펴본 본 연구를 통해 현재 유기적 패션디자인이 시대적 패러다임과 함께 전개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디자인 전개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유기적 패션디자인에서 유기체적 사고관은 이질적인 이미지를 조화롭게 통합시켜주었다. 다양한 이미지가 동시에 풀라주 된 혼성화는 차별화된 다양한 요소를 모두 포용하는 총체적인 세계관이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할 것이다. 자연주의사고는 유기, 자연의 각 구성요소들을 존중하여 패션에 직접적으로 표현한 결과 탈구조주의를 지향하는 시대적 의미를 보여주었다. 순환적 사고에서 전개된 순환성은 유기적 패션디자인에 자연의 지속적인 순환 체계가 결합되어 지속적으로 유동하는 시대적 상황이 요구하는 유기적 패션디자인 전개의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단절에 대한 부정, 탈경계 양상으로 이어지게 되어 유기적 패션디자인이 타 분야로 전환 가능한 결과를 유도한 의미가 있다. 물질중심을 부정하고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 결과 유기적 패션디자인은 인간의 감정, 개념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유기적 패션디자인이 산업사회 기능성을 강조한 인간중심화의 범위를 기능성 측면에서 정신적 측면으로 확대시켜준 의미가 있다. 또한 디지털의 결합과 관련해서 인간의 감정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정신적인 만족을 극대화하여 현 시대가 요구하는 디자인을 전개한 유기적 패션디자인의 전개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디지털시대 유기적 패션디자인은 유기체론, 생태학적 관점에서 일정 중심사고를 부정, 각각의 개체가 유기적·지속적으로 결합되고 순환하는 시대적 패러다임과 개념적 맥락이 일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디지털시대 패러다임변화에 따른 유기적 패션디자인의 표현 특성에 대한 본 연구에서 시대적 경향과 관련하여 유기적 패션디자인의 변화 흐름을 통찰할 수 있었다. 또한 유기적 패션디자인이 시각적으로 미적 가치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자연주의, 유기주의 사고에 의해 내적측면에서 디지털시대 차가운 감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시켜 주고 본질적으로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디자인 사조로서 내적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이는 향후 지속적으로 유기적 패션디자인이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동시에 디지털의 발전과 함께 그에 상응하여 인간의 본질적인 삶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함을 시사한다. 앞으로 다가올 시대적 상황과 함께 차별화된 가치를 동반하며 새로운 변화를 추구, 전개될 유기적 패션디자인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강병길. (2008). 디자인에 적용된 유기적 형태에 관한 연구. *조형미디어학회 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 11(1), 3-8.
- 권은숙. (2003). 디지털시대의 디자인 문화. *한국복식학회 춘계학술대회*(2003).
- 김인경. (2003). 건국 디자인 벤처(KKU)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5(2), 93-102.
- 김종균. (2000). 제품디자인에 있어서 디지털화, 감성화의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38, 100-101.
- 김지희. (2005). 현대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디지털 문화현상. *한국의류산업학회지* 7(2), 143-152.
- 김지희, 유태순. (2007). 현대패션에 나타난 디지털 문화의 감성성에 관한 연구. *복식산업학회지* 57(8), 1-13.
- 김현수, 양숙희. (2003). 디지털시대 패션에 나타난 사이버페미니즘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11), 200-211.
- 윤민희. (2003). 디지털 시대의 디자인 표현경향에 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지*, 101, 34-35.
- 이윤. (2009). 시대적으로 본 유기적 디자인의 형태 표현 맥락, *기초조형학회지*, 1(2), 333-340.
- 이정민, 홍의택, 안성희. (2008). 동시대 디자인 패러다임이 적용된 기초조형 교육안 개발 I, II. *기초조형학연구*, 9(4), 163-175.
- 최병훈. (2004). 유기적모더니즘 가구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연구. *한국살내디자인학회* 13(44), 153.
- 권상희. (2008). *디지털 문화론*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 신병윤. (2002). *경계없는 형태와 공간을 위하여*. 서울: spacetime.
- 이성우. (2007). *0/1의 세계에서 사람 무엇인가*.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이인식. (2000). *21세기 키워드* 서울: 김영사.
- 이정우. (1999). *시뮬라르크의 시대 들뢰즈와 사건의 철학*. 서울: 거름.
- 장시기. (2008). *들뢰즈와 탈근대 문화연구*. 서울: 당대.
- Charlie Gere. (2006). *디지털 문화*(임산 역). 서울: 루비박스.
- Thomas Hauffe. (2005). *디자인이명종* 역. 서울: 예경.
- James, S. CURL. (2006). *A Dictionary of Architecture and Landscape Architecture*. Oxfore University Press.